

기업 매출 9.7% ‘물류비’로 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액의 9.7%를 물류비로 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 기업들의 2배가 넘고 있으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는 산업자원부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전국 500개 제조업체 및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5년의 물류비 동향을 분석해 17일 내놓은 ‘기업물류비 실태’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1997년 12.9%에서 하락세를 거듭, 2003년 9.9%로 처음 10% 아래로 떨어졌던 뒤 2005년에는 9.7%로 다시 하락했다.

산자부, 전국 500개사 실태조사 일의 2배 ... 中企는 10.2% 큰 부담 물류비중 운송비가 절반이상 차지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온 하락폭 0.2%포인트는 2003년 조사시 하락폭(1.2%포인트)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아울러 이 비율이 4.8%(2005년 기준)에 불과한 일본 기업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이며 국토가 훨씬 넓은 미국(7.5%)에 비해서도 물류비 부담이 과도한 상태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물류비 부담 격차도 악화되는 모습이었다. 대기업의 물류비 비중은 7.8%로 2003년 기준 조사에 비해 2%포인트나 급락했다.

내수경기가 위축된데 비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물류비 가운데 수출의 비중은 29.6%로 2003년 조사(26.4%)에 비해 증가한 반면, 내수비중은 같은 기간 73.6%에서 70.4%로 감소했다.

한편, 물류비 절감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전체 물류비의 42.9%가 외부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물류비 가운데 외부 지급 물류비의 비중은 2001년 33.8%에서 2003년 42.7%를 기록하는 등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산자부 김성철 유통물류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물류 표준화와 정보화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물류비 절감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올 4월까지 성장률이 15.6%로 4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인 14.5%를 상회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5년 연속 호황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196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조정 기능이 개선되고 이머지마켓과 선진국 시장의 조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호황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신권 발행에 따른 현금입출금기(ATM) 교체를 제외하더라도 설비투자가 좋았으며 가계소득, 제조업 평균 가동률, 소비심리 등이 모두 양호해 경제전망 상향조정이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가계통’ 통신위, 고강도 조사

휴대전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가짜 주민번호를 이용해 허위로 ‘가계통’하는 이동통신 업계의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 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가계통 실태를 집중 조사중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가계통이 많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올초부터 최근까지의 가계통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화재 2006대상 시상 ‘판매왕상’에 강종숙·홍성현씨

대한화재는 16일 서울 역삼동 리즈칼호텔에서 ‘2006 회계연도 연도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와 가족,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에서 강원지점 춘천영업소의 강종숙(여·52)씨가 설계사 부문 판매왕상을, 전북지점 익산영업소의 홍성현(46)씨가 대리점 부문 판매왕상을 각각 차지했다. 또 시흥영업소의 한석철(42)씨가 신인왕상을 수상했다.

강씨와 홍씨는 지난해 각각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고 신인왕상을 수상한 한씨는 월 평균 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을 성장률 4.5~4.6%”

삼성경제연구소 4.3%서 상향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16일 국민은행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프라이빗뱅크(PB) 고객을 대상으로 주최한 자산관리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소장은 이날 “2007년 하반기 경제동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4.5~4.6%로 상향조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기존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연 4.3%였다.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나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판단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 소장은 “연초에는 미국 경제의 정착 가능성, 유가·환율·복합·부동산시

장 불안 등 복병이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이같은 변수들이 관측해 풀리고 있다”며 “여러 지표를 볼 때 평가가 1.4분기에 바닥을 통과하고 2분기부터 조금이나마 상승세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올 4월까지 성장률이 15.6%로 4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인 14.5%를 상회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5년 연속 호황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196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조정 기능이 개선되고 이머지마켓과 선진국 시장의 조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호황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신권 발행에 따른 현금입출금기(ATM) 교체를 제외하더라도 설비투자가 좋았으며 가계소득, 제조업 평균 가동률, 소비심리 등이 모두 양호해 경제전망 상향조정이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개막된 가운데 삼성테크윈 부스에서 모델들이 최대 9명의 얼굴을 자동 인식해 초점을 맞춰주는 멀티미디어 카메라 VL10U7 등을 선보이고 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기자재전에는 전세계 20개국의 250여개 유명 광학기기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개막된 가운데 삼성테크윈 부스에서 모델들이 최대 9명의 얼굴을 자동 인식해 초점을 맞춰주는 멀티미디어 카메라 VL10U7 등을 선보이고 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기자재전에는 전세계 20개국의 250여개 유명 광학기기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정년 늘리면 1인당 月30만원 지원

재경부, 연내 제도 마련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년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연금으로 보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다음달 고용 유연성에 관한 노·사·정 합의도 추진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연장된 기간의 절반동안 정년연장근로자 1인당 달마다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기 퇴직을 막고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용 계약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를 통해 매워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3월 이미 월 42만원에서 156만6천원으로 인상된 조기 노령 및 재직자 노령연금의 지급 정치 및 금액 기준 소득을 다시 현재의 1.2배~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기준 구간을 2~3개 설정해 구간별 급여액을 차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조 차관보는 “연금지급 제도는 현재 노동법상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올해 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대출, 산업에 몰린다

1분기 368조... 주택대출 규제 여파 4년만에 최대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여파로 올해 1-4분기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증가액이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산업대출금의 상당부분은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용도로 흘러갔지만 설비투자가 자금 수요도 크게 늘어 전체 산업대출금 잔액 가운데 시설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1분기 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368조4천264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15조2천184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규모는 2003년 1분기의 16조9천855억원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이처럼 산업대출금 증가규모가 커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3년1분기에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2002년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후유증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반작용으로 2003년들어 산업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금 증가액은 2조4천17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4분기의 가계대출금 증가액 14조6천230억원의 6분의 1 수준으로 1999년 이후 8년만에 최저 치에 해당한다.

동양상호저축은행 창립 24돌 경상이의 100억 달성... 우수행원 시상

동양상호저축은행(은행장 이강)은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사무실에서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상이의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고객감독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우수행원 시상식(사진)에서는 안성철과장이 최우수행원상을, 김인희대리와 임택택 주임이 각각 우수행원상을 수상했다.

임직원들은 이날 기념식에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이 고객을 창출하는 은행’을 모토로 올해 6월말 결산시까지 경상이의 100억원을 달성하기로 했다.

동양저축은행은 1992년 대구그룹에서 인수할 당시 자본금 12억5천만원에 수신 230억원, 여신 222억원이었으나 현재는 자본금 178억원에 수신 1천145억원, 여신 1천365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차명계좌로 주식투자 손실뎌 배상 못 받는다”

증권사 직원에게서 일직 수익을 약속 받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을 경우 증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초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B증권사 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 직원이 소개한 차명 계좌로 3천만원을 입금했다.

증권사 직원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다 손실이 커지자 남은 돈을 인출해 퇴사한 뒤 다른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작년 8월 달아났다.

A씨는 이 직원이 법에 어긋난 투자 권유를 하고 고객 돈을 인출한 데 대해 증권사의 책임이 있다고 투자 원금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금감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직 수익금의 지급 약정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무효인데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A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하면서 계좌 운영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A씨의 배상요구를 기각했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스텝스*	[주5일] 냉정고개발 성능TEST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18	062-351-6050
(주)현대투어시스템	2007 상반기 사무직 신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2	02-3015-0232
(주)HRN	[광주,순천,목포]SK텔레콤 통신기술직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25	062-529-2671
(주)주연	사무관리/총무부/영업부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5/25	062-373-9012
로얄(TOT)*	유통영업팀 광주영업소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5	032-510-8425
타강산업(주)	영업관리 및 출하관리직·신입/경력 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5/25	062-956-6143
대정산업(주)	품질보증 신입/경력 모집공고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5	010-7675-1023
(주)임화속	제품관리 및 납품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26	062-955-1800
광주인타(주)	시술생산직 (2교대) 근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26	062-944-0111
우양물산	생산직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062-603-0061	05/31	062-603-0061
(주)세방건설	광산구개발·공사/공무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269-0058
(주)삼일전자	컴퓨터 A/S 및 정보화기기 A/S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5/31	062-971-0790
공전제과	판매 영업 및 매점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671-3477
(주)유빈기술개발	토목설계 경력직 채용 공고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5/31	061-370-8700

